

'26년,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관리 방식 대폭 개선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미리 배정, 건강관리 영역에 자율적 사용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근수)는 2026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운영 방식을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 방식 개선은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에게 건강검진비를 미리 배정하고 복지포인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교 담당자 모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건강검진비를 지급받기 위해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의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학교 담당자 또한 교직원의 신청 간마다 건강검진 영수증 등 민감한 의료자료를 검토·확인해야 하는 불편했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건강검진비는 기존의 건강검진비 용도에 더해 운동시설 이용, 건강

용품 구입, 예방접종 등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교직원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비를 운동·예방·생활 건강 영역에 활용하는 것 또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한근수 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교직원에게는 편리하고 자율적인 복지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는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을 가져오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안양시, 설 연휴 가스 사고 예방 특별 점검

안양시가 설 명절 기간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관내 주요 가스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가스 시설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가스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지속가능에너지팀을 중심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등 유관 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반이 수행한다.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고압가스 충전허가시설 1개소, LPG 충전소 4개소, LPG 판매업소 19개소, CNG 충전소 1개소, 다중이용시설 17개소 등 총 42개 시설이다.

점검반은 ▲긴급차단장치 및 가스누

출경보기 등 안전 설비 정상 작동 여부 ▲가스 시설 유지 관리 상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 점검 실시 여부 ▲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 명절 이전까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가스 공급 불편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양시청 당직실(031-8045-2222)이나 만안구청(031-8045-3222)·동안구청(031-8045-4222)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상황실(043-750-1300)과 ㈜삼천리 상황실(주간 09:00~18:00: 031-454-3002, 야간 18:00~익일 09:00: 031-345-1300)을 통해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송민수 기자

파주시,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준설작업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주요 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설작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수관로 내부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고 배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악취 발생과 침수 우려 등 각종 시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작업은 오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준설 대상 지역은 문산 자유시장, 봉일천 전통시장, 금촌 전통시장, 적성 전통시장 일원으로, 시장 내부와 주변 하

수관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준설작업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시는 설 명절 연휴 전까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수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의 주요 하수관로와 맨홀펌프장을 대상으로도 준설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정과 상가 등에서 배출된 유지류가 낮은 기온으로 인해 하수관로 내부에서 굳어지면서 관로 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오수가 도로로 넘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주요 하수관로와 맨홀펌프장에 대해 주기적인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준설작업을 통해 하수시설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45%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올해 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비롯한 재난복구 시스템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올해 하천정비사업에 2,490여 억원 투입

도-시군 협력 강화를 통한 '26년 시군 추진 지방하천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방안 마련

사업별 추진실적 점검, 문제점 사전대출 및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 시군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가 올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490여억 원을 투입, 88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시군 대행사업은 40개로 340여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6년도 도-시군 지방하천 정비사업추진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도-시군이 함께 모여 25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시군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과 건의사항 청취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 직접사업과, 시군 대행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시군 대행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일반적으

로 5년이상 장기사업인 점을 고려해 현장여건, 재해 관련 시급한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해 경기도는 지난 16년부터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와 더불어 노인·어린이 등 세대와



문화·체육 등의 분야를 망라한 협업사업을 통해 지방하천의 가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시군 오디션을 통해 선정한 5곳(가평 조종천, 이천 율현천, 김포 가마지천, 양행 연수천, 광주 우산천) 하천사업이 새로 설계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

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활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민수 기자

성남시,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으로 실천 의지 다져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청렴 실천 서약식



있는 행정 △말이 아닌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실된 소통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남시는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중심의 반부패·청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렴은 한 사람의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간부공무원부터 책임 있는 실천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남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하남시·SH, 위례 숙원 해결… 장지천 방류구 ‘디자인 명소’로

SH 사업비 17억 전액 부담… 장지천 발원지, 위례신도시 대표 경관공간으로 재정비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와 손잡고 장지천 발원지 일대의 경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디자인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하남시는 3일 시청에서 SH와 ‘장지천 발원지 디자인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지천 발원지 주변 경관 개선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마련된 결과다.

장지천 방류구는 위례지구에 공급되는 하천 유지용수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지점이다.

협약에 따라 SH는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7억 원 전액을 부담한다. 하남시는 사업 시행 주체로서 시설 설계부터 관계기관 인·허가, 공사 추진, 준공 후 시설물 관리 업무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사업 대상지는 위례도서관 인근 학암동 675-5번지 일원의 장지천 방류구다. 시는 협약 체결 직후 즉시 설계



에 착수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장지천 발원지와 유지용수 방류구의 구조, 입면, 색채, 재질 등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사업은

S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시 재정 부담 없이 발원지 경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장지천 발원지가 위례지구와 하남시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이천시, 시청 민원실에

'여권안심폐기존' 운영

이천시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청 국민행복민원실에 '여권안심폐기존'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여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이다. 특히 2020년 12월 21일 이전에 발급된 옛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폐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 시민들은 적절한 폐기 방법을 알지 못해 가정에 보관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시는 여권에 내장된 전자칩과 보안 소재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안전하게 폐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청 민원실 내에 여권 전용 세단기를 비치한 '여권안심폐기존'을 마련했다.

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신규 여권 발급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여권을 소지한 시민은 누구나 국민행복민원실을 방문해 자신의 구여권을 즉시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은 보관뿐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문화관광축제’ 지정

안성시는 지역 대표축제인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개최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놀이’를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축제다.

콘텐츠의 차별성과 전통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아,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축제는 10월 1일 추모제와 전야제(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K-문화가 주목받는 흐름에 맞춰, 안성의 대표 문화자산인 ‘바우덕이’와 ‘남사당놀이’ 중심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처음 선보인 ‘안성 축산물구이존’을 비롯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성」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공연과 체험,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2026년 바우덕이축제를 한층 내실 있게 준비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전통문화의 매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며 “K-컬처 확산과 함께 바우덕이축제가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생 모집

광주시는 농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정원은 30명이다.

교육과정은 3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되며 유기농업, 작물 재배, 토양관리 등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시험 대비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유클)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농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민원신청-농업기술센터교육)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광주시민으로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한편,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문의는 농업지원과 인재양성팀(031-760-4758)으로 하면 된다.